

# 화순, 미래농업 선도 '청년농업인' 키운다

## 스마트 창업 스타터 지원 등 13개 사업·37개소... 13억원 지원

화순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13개 사업, 37개소 13억 원을 지원한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비즈니스 성공모델 마련으로 청년 창업 비전 제시 및 지역농업 활력 증대를 위해 청년농업인 스마트 창업 스타터 지원 사업을 1개소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스마트 창업 스타터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 상품화, 브랜드 개발, 체험장 조성 등을 통해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청년 4-H회 육성 및 영농정착 지

원을 위한 사업으로 4-H회원 영농 정착지원사업(4개소, 1억 6000만원)이 있으며, 4-H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고, 창업활동을 위한 신기술 도입, 브랜드 개발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중심인 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해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1개소, 3000만원)을 추진하여 부모세대 영농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하거나 6차산업화와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공모사업 3

개사업, 8개소 2022년 선정되어 추진 예정이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오는 2월 10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대상자를 추천한다.

청년창업농 8명을 대상으로 농가별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을 추진하며, 창업 초기 단계의 농장디자인 컨설팅 및 분야별 맞춤형 연수 지원 프로그램인 인큐베이팅 3개팀(팀구성 : 청년교육생 1명 + 선도농가 1명), 정착 단계의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청

년스토리 동아리 모임체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대갈등 완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지원으로 청년농업인들의 탄탄한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4-H연합회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4-H 신규 회원을 연중 모집 중이다. 2023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오는 2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2023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신청 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화순=주용현 기자**

### 순천 소식 '순·식·간'에 전해드려요

#### SNS 콘텐츠 신설... 매주 수요일 '빠르고 쉽게 전달'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순천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쉽고 정기적으로 전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 콘텐츠 '순·식·간'(순천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을 신설한다.

매주 수요일 블로그, 유튜브 등 순천 7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채널에 게시되는 '순·식·간'은 한 주간의 이슈와 박람회 소식, 풍경 등을 담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과 편집된 이미지로, 순천의 소소한 소식과 일상을 재미있고 알기 쉬운 가벼운 형식에 진정성을 담아 제작할 계획이다.

'순·식·간' 1회차 영상은 순천만, 도심을 찾은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야생동물이 찾는 박람회장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18일 순천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순천시 홍보실 관계자는 "다양한 SNS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짧고 흥미로운 정보를 선호하는 대중의 수요에 맞맞추고, 시정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유기적인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7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구독자가 2022년에 비해 17% 증가하는 등 꾸준한 홍보 성과를 이루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말까지 납부하면 6.4% 공제

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년도 신청차량 3만 7천 대는 일괄 신청 처리하고 납부서는 지난 9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12월)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받는데 2023년은 연세액의 6.4%를 할인받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위탁스 또는 방문 없이, 세정과 전화로 연납을 신청받고 있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위탁스, 각 은행 사이트 및 스마트폰 금융앱에서 '지방세'로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 통지되고, 타 시군구로 전출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탁영희 세정과장은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연납 제도 이용을 적극 추천하면서 "다만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스템 교체로 1월 19일까지만 가상계좌나 ARS 이용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납부에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영광, 참여마을 신청 접수

영광군은 주민주도로 마을을 가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존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해까지 92개 마을을 선정해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환경정화 활동 등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우수 으뜸마을 3곳 선정, 2022년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전남도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군은 45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 총 137개 마을을 목표로 사업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137개 마을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에 참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으뜸마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서준민 기자**

## 해남 '토지분쟁 없애는' 지적재조사 사업 박차

### 학동지구 등 2023년 7개지구 2584필지 주민설명회 가져

해남군은 올해 해남 학동, 화산 연곡·구성·신평, 현산 장동·두모, 황산 정의지구 등 7개지구 25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5억2000여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1월초 모든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절차,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방법,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

과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지적재조사 촉진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경계 협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적정화(수치화)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

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 완료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 영암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준비 막바지

###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총력'

영암군이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암군은 16일, 안전하고 성공적인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위해 관련 실무소별 업무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경기장 시설·안전·교통대책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마무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남은 기간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경기장 취약요소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며, 대회 기간 영암군을 방문하는 선수 및 관람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회 진행은 물론 숙박업소, 음식점 등 편의시설 준비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 이후 4년 만에 월출산의 고장 영암에서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가 모두 안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는 1월 19일(목)부터 24일(화)까지 6일간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전국 25개팀, 3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모래판위 치열한 경기를 펼치게 되며, 경기 후 푸짐한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 신안군의회,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 관내 3개 시설 방문... 생필품 등 필요 물품 전달



신안군의회는 설을 앞두고 1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형성新安군의회 의장과 지역구 의원들은 '신안보육원', '신안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전국 25개팀, 3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모래판위 치열한 경기를 펼치게 되며, 경기 후 푸짐한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안=박정래 기자**

김형성新安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설 입소자분들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신안=박정래 기자**

## 목포, 만 0~1세 양육가정 부모급여 지급

### 기존 영아수당 확대... 월 최대 70만원 지급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도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 /**목포=김근호 기자**

##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 '스마트 가든' 조성

무안군은 남악신도시에 소재한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영장 벽면에 입면 녹화사업으로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도시농업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했으며 스노우사파이어, 안시리움, 홍풍야자 등 공기정화능력이 뛰어난 식물들로 식재했다.

'스마트 가든'은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치유와 휴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연직인 실내정원으로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 가든'은 실내 공기정화 식물과 자동급수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사계



절 정원을 즐길 수 있으며 모니터를 통해 설치 전·후의 미세먼지, 습도, 온도 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벽면의 푸르름이 아름다워 코

로나 19로 지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포토존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안=박태연 기자**

## 담양,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

### 41개 사업 17억 3750만 원 지원... 내달 9일까지 접수

담양군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사업은 식량작물 분야에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 교육 등 5개 사업을 지원한다.

총 41개 사업, 17억 3,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기간은 1월 16

일부터 2월 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가능하며, 사업 희망농가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사업별 추진계획을 상담한 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현지 평가와 2월 중순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조세환 기자**

## 순천, 모두가 편안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 성수품 물가·교통 안전관리 등 귀성객 맞이 분주

순천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 교통안전,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실천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061-749-5459) 운영과 비상근무 체제(252명)를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21일과 24일에는 생활쓰레기를 정상 수거하며, 22일, 23일은 이동차리반을 운영해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하수도, 가로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 권역별 보수업체 및 일별 상황근무자도 배치한다.

최근 치솟는 소비자 물가 상승 대책으로 설 전후 사과, 배 등 30종의 명절 성수품의 물가를 중점 관리하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보호를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당일 시립공원묘지와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주변 교통통제와 함께 공원묘지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육군1179부대와 수자원공사는 주암댐과 상사댐 고립지역 성묘객 수송을 위한 동력보트를 지원한다. /**순천=조순의 기자**